

주일 2 부에배

10:15 ~10:30 전교인 찬양 연습

10:30 ~10:50 교회소식 / 성경 봉독

10:50 ~11:00 예배를 위한 개인기도

※ 예배로의 부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새 621)

※ 신 앙 고 백 사도 신 경

목 회 기 도 양지근 성도

※ 봉 헌 / 감 사 봉헌: 문선주 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 전 성 도 찬 양 내 주 하나님(새 469)

설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23
“풀, 채소, 나무” 창 1:11-12

찬 양 / 기 도 약한 나로 강하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597)

※ 축 도 강래성 목사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연 보	\$3,483.00
감사연보	
특별연보(지목)	
특별수입	
합 계	\$3,483.00

월별사역계획

매주일오후 3 시-당회

첫째주-한가족특강

둘째주-동산모임

셋째주-부서별 모임

넷째주-소그룹 모임

다섯째주-제직회

성찬 -2 월, 4 월, 7 월,
11 월

9 월 회중기도 및 봉사명단

	주일 1 부	주일 2 부	수요기도회	봉헌자
첫째	김은석	이의로	서영주 (8/29)	문선주
둘째	문명철	정윤구	이영옥 (9/05)	
셋째	서성권	양지근	정선희 (9/12)	
넷째	조성준	최용제	차영아 (9/19)	
다섯째	전현석	임영규	임순희 (9/26)	

이단 3- 구원과 3

그렇다면 구원파의 구원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됨은 무엇일까?

회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인가? 물론 회개 필요 없다는 것은 분명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해야 죄를 용서 하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회개와 무관하게 신자는 이미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 필요 없다는 말도 일리는 있지 않은가?

이들의 주장에서 우리가 간과해 버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구원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 사함 또한 구원용이 아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인간의 구원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사함, 회개, 이 모두를 인간의 구원에 목적을 두고 행해진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회개를 오해하고 있다. 이들은 회개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하지만 회개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 천국은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용서를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신자는 늘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죄를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박옥수는 그의 책에서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부분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놀려 그 마음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노아는 의인이요. p126)고 말한다.

이 내용만을 보면 박옥수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 죄에 놀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의 말도 지극히 복음적인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구원 받은 신자가 또 다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회개 한다면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구원에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 또한 박옥수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박옥수 목사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구원이라는 사실은, 정통 복음주의 목사들과 신학자들 모두 동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과연 이 말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엡 1:7 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12 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죄 사함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교회소식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등록을 환영합니다:황강진 성도
- ❖ 교우소식- 한국 방문 : 임영규, 임순희, 최희자, 유창환, 유주현, 유오례성도
- ❖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문의:김은석 집사)
- ❖ 9/16 주일 전액 연보를 선교에 지원합니다.
- ❖ 9/16 일부로 EM 교역자인 조나단 김 목회 후보생이 사임합니다.
- ❖ 오늘 애찬후, 소그룹 모임으로 말씀은혜를 나눕니다.
인도자는 애찬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 ❖ 제 1기 남성 양육 공부자
- 명단 : 김은석, 김종문, 서성권, 성시철, 이의로, 최동명, 황강진
- 일시: 9/18(화, 오후 7시)부터 12주간(문의:강래성 목사)
- ❖ 10월부터 초원별로 추계 가정 대심방을 합니다. 동산섬김이는 해당 초원 장로님께 심방 스케줄을 알려주세요.
- ❖ 매주 금요일 오후 7:30~9:00 개인기도회, 예배당(문의:유창환 집사)
- ❖ 목회자와 티타임을 매월 둘째주 애찬 후에 갖습니다.(문의:문선주 성도)

예배시간안내

주 일 예배	-1부-오전 9:00, 2부-오전 10:30 -EM (youth) -오전 10:30, Jonathan Kim -유초등부 - 오전 10:40, 김은석 집사
수 요 집 회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금 요 개 인 기 도 회	오후 7:30-9:00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치리의
신정
올바른
행실
한집
행

제 2018 - 41 호

2018년 9월 16일

주일 1부 예배

- ※ 예배로의 부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새 621)
-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4주일) 제 62(인도자):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회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목회기도 서성권 집사

교회소식

봉헌기도

설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23
“풀, 채소, 나무” 창 1:11-12

※ 찬양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597)

※ 축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http://www.edenpchurch.org C:714.733.3486